총림 해제 요건 완화·방장 자격 확대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서 '총림법 개정안' 결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총림 해제 요건 사유가 완화되고 방장 자격은 확대된다. 이는 현실적인 총림 운영을 반영한 것이여서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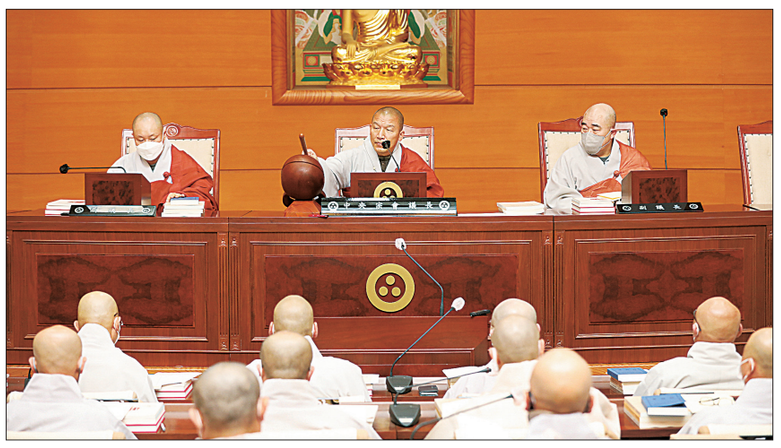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는 11월 9~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26회 정기회를 열고 총림법 개정안과 종단 주요 인사안,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승인 등 26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다.

심우 스님이 대표 발의한 총림법 개정안은 총림 지정 해제 사유를 총림이 선원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거나 선원·승가대학(승가대학원)·율원(율학승가대학원)·염불원 중 2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운영되지 않을 경우 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총림 방장 자격 요건으로 전문선원에서 20안거를 성만하거나 총무원장·중앙종회의장·호계원장을 4년 이상 재직한 경력한 스님이면 가능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심우 스님은 "출가자 감소 등 현실적인 총림 운영 현황을 반영해 총림의 구성요건 및 총림 지정의 해제 사유를 완화하려 했다"고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진각(해인사) 스님은 방장 자격을 총무원장·중앙종회의장·호계원장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교육원장과 포교원장도 승가교육과 전법포교행으로 종단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방장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면서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총림 구성·해제 사유 완화해
방장 자격에 총무원장 등 추가
직능선출위원 계호 스님 선출
1994년 이후 첫 비구니 스님
대종사, 명사 특별전형 동의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승인해
'해인도 철거' 결의문 채택도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9~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26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다수의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총무원장·중앙종회의장·호계원장은 선거와 중앙종회에서 선출하지만,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은 총무원장의 추천되기 때문에 격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중앙종회는 방장 자격에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을 추가한 수정안을 표결을 붙였으나 41명이 반대해 폐기됐다.

이후 중앙종회는 총림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출석 의원 65명 중 찬성 49명, 반대 7명으로 출석인원 2/3을 넘겨 가결됐다.

종단 주요 인사안들도 모두 처리됐다. 중앙종회는 직능대표선출위원으로 前화엄사 주지 종열·총무부장 호산·동국대 상임이사 성월·봉은사 주지 원명·前 송광사 주지 영조·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을 선출했다. 비구니 계호 스님이 직능대표선출위원으로 선출된 것은 1994년 직능대표 선출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선조, 태허 스님의 임기만료와 지오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초심호계위원에 칠불사 주지 도응 스님, 송학사 주지 향록 스님, 개운사 주지 보림 스님을 각각 선출했으며, 법광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른 재심호계위원에 前 중앙종회의원 무자 스님이 선출됐다. 법규위원에는 前 해인사 포교국장 명강 스님, 흥부암 주지 범종 스님이 선출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에는 前 총무원 문화부장 수경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소청심사위원장에는 각화사 주지 환풍 스님이, 소청심사위원에는 운주사 주지 무안 스님, 용문사 주지 도일 스님, 연미사 주지 덕암 스님이 선출됐다. 탄원 스님과 혜일 스님의 사직에 따른 종립학교관리위원에는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 중앙종회의원 오심 스님이 선출됐다.

중앙종회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복수 추천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및 감사 후보에 대한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동국대 이사 성우 스님의 후임에는 종호·원충 스님이, 감사 원명 스님의 후임에 원명·우봉 스님, 감사 일화 스님의 후임에 도림·해량 스님이 추천됐다.

또한 총무원장이 제출한 대종사 및 명사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대종사 법계에는 성학·성운·진관·기연·현일·종성·중하·성연·정휴·법보·효담·청안·돈명·대운·동봉·혜문·운성·지정·명신·법진·수인·영진·현전·영명·무상 스님 등 25명이 대상자로 제출됐다. 명사 법계는 진홍·지견·재호·희원·선공·도문·지우 스님이 등 7명이 대상이다.

중앙종회는 법계위원 법현 스님에 대한 위촉 동의와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이사 등운 스님에 대한 선임 동의, 교육원장이 제출한 제12기 고시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의 건도 가결했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불기 2567(2023)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내년 예산은 814억 5089만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는 283억여 원으로 올해 대비 4억166여만원이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531억여 원으로 올해 대비 45억 원이 감액됐다.

또한 중앙종회는 '천주교 해인도(법계도) 도용에 대한 사과 및 전시물 철거 촉구 결의문',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기를 앞당겨 폐회했다.

통합종단 60주년 조계종 "세상의 벗 되겠다" 다짐

11월 10일 조계사서 기념법회
종정예하 "정법당간 세운 계기"
11월 16일까지 특별전시회도

"우리 종도들도 전국민의 교망앞에서 육화의 정신에 입각해 종단의 전통을 바로 잡고 현실 타개를 위해 이 종헌을 제정함에 이르렀다."

1962년 제정된 조계종의 종헌 선포문이 다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울려퍼졌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1월 1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통합종단 출범 6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원로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교육원장 혜일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과 총무부장 호산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부·실·국장 스님 등이 참석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종단 사부대중이 화합해 모든 사람들이 찬탄하는 종단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성파 대종사는 "청정하고 여법한 비구·비구니 교단으로 1700년의 전통을 이어온 조계종단이 60년 전에 종헌의 전문(前文)과 제1조에서 제5조에 이르기까지 정화의 이념을 명시하고 도제 양성·포교·역경의 3대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 역사적인 일이 통합종단의 출범"이라면서 "통합종단의 출범을 계기로 간화선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선종의 정법당간을 높이 세우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종단 사부대중 더욱 화합하고 종단 발전을 위해 수희동참하며,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감동하고 찬탄하는 종단이 되도록 힘을 합쳐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통합종단 60주년 기념법회 직후 열린 특별전시회 개막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원로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가 전시 라운딩을 하고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통합종단 출범 60주년을 맞은 조계종이 나아갈 방향을 역설했다.

"종교인구가 급감하고, 출가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고 설명한 진우 스님은 "통합종단 출범 당시 발원했던 정법수호와 한국불교 중흥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후대에 전할 한국불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화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37대 총무원 집행부는 통합종단 60주년을 맞이해 종단이 나아갈 길은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의 벗이 돼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해주는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종단은 대중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진우 스님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왕생극락을 기원하며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아 끝까지 희생자들의 아픔과 국민들의 슬픔을 나누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함께 조계종 총무원은 통합종단 출범 60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를 11월 16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전시회에는 중앙기록관에서 보관 종단 주요 기록물, 영상물이 전시된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장 서봉 스님 임명

진우 스님, 10일 임명장 수여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무일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임 사서실장 서봉 스님과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무일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진우 스님은 "서봉 스님은 교육원장으로 재임 당시 함께 종무를 해서 서로의 성향을 잘 알고 있어 사서 업무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총무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소통하고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승려복지는 종단 스님들에게 중요한 종책"이라며 "총무부장 스님을 잘 보필하며 승려복지 종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신임 사서실장 서봉 스님은 대원 스님을 은사로 1989년 사미계를, 1992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해인총림 율원과 동국대 고고미술사학 등을 졸업했다. 해인사 승가대학 부교수, 해인총림율원 율원장, 해인사 율학승가대학원 대학원장, 해인사성보박물관장,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을 역임했다.

신임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무일 스님은 화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9년 사미계를, 2004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월 10일 신임 사서실장 서봉 스님〈사진 왼쪽〉과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무일 스님〈사진 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